

축제 및 행사

홍천강 뽕뽕축제, 악조건속 개최 홍천군민 저력 과시



◇홍천강 뽕뽕축제에 참석한 기관단체장. 오른쪽부터 허필홍 홍천군수,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 김재근 홍천군의회 의장, 정순범 홍천세무시장, 전명준 홍천군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영재 강원도의원.

홍천군문화재단(대표이사 전명준)주최 홍천강 뽕뽕축제가 경자년 새해벽두인 1월 10일부터 26일까지(17일간) 홍천강변 일원에서 성료 되었다.

홍천군의 뽕뽕축제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였다. 특히 황금송어잡기, 실내낚시터, 맨손 송어잡기 등 날씨에 대처한 행사 구성과 우리농산물, 먹거리장터 등 눈과 입이 즐거운 행사였다. 그리고 예년엔 볼 수 없었던 풍물시장, 버드리 공연은 군민과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또한 홍천군 군부대의 사격 시뮬레이션 등은 홍천의 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부스 운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각 천막의 부스 사이에 내부 통로가 있었다면 구경 인파와 구매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을 것이다. 단일 통로를 사용하다 보니 이동 시 혼잡함이 있어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면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 다음 축제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년 1월은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로 약100년 만에 겨울일기가 가장 따듯했다고 한다. 제일 추워야 할 소한(1월6일)에 때 아닌 겨울비가 와서(홍천 35mm) 화양강 물이 제법 많이 늘어서 축제장의 설비 일부가 침수되기까지 하였다. 화양강 결빙 문제로 축제 준비위원들이 발 빠르게 마련한 부교 낚시

터와 확장된 실내낚시터는 축제를 즐기러 온 많은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다. 맨손으로 송어잡기와 실내 낚시터에서 한 마리도 못 잡은 태공들에게 송어를 한 마리씩 제공한 것 또한 배려있는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한다.

다음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여 날씨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으로 차질 없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홍천문화재단 및 축제 관계자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aver.com)



우리 마을

남면의 향기

사통팔달 교통 요지, 홍천~용문 철도 건설땀 대도약

홍천군 남면은 국도44호선과 지방도494호선이 지나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인접한 곳이다. 남면 양덕원에서 동서울까지는 1시간이 소요되므로 수도권과 접근성도 용이하다. 금물산에서 발원한 물은 노일리를 거쳐 홍천강으로 유입되며 양덕원 면사무소 부근에는 각종 상가가 밀집하여 있고 외곽에는 군부대와 농지가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인구 6,290명에 법정11개리, 행정21개리 84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이 홍천을 찾아오는 관문이기도 하다. 88올림픽 당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이용한 문이 올림픽공원 남문인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남면 용수리에는 이사장 김인순(가수 인순이)이 설립한 해밀학교가 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로 2013년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 남면 출신 가수 이애란을 빼놓을 수 없다. '100세 인생'을 불러 한 때 남녀노소 불문한 트로트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가수는 현재 홍천군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 홍천군수의 군정목표 1호가 철도망이 들어오는 것이다. 남면을 중심으로 홍천-용문 간 철도망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 중이다. 홍천군과 남면 추진위원장(고종준)을 필두로 한 철도망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바이다.

남면 현황

- ▶위치 : 25108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97
- ▶연락처 : Tel : (033)432-4004, FAX : (033)432-7377
- ▶면적 : 120.4km²
- ▶행정구역 : 법정 11개리, 행정 21개리, 84개반

지역특성

- ▶지역특성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횡성군 공근면 경계지역
- ▶3개 군부대 주둔지 : 기갑여단, 기계화여단, 기계화보병사단포병여단
- ▶전형적인 농업지역 : 농산물 출하가 관내 읍·면 중 가장 용이
- ▶관광자원 : 남노일리 홍천강변 백사장 등 피서철 관광소득개발 자원 보유

이광명 기자(shout1700@hanmail.net)



CONTENTS



02 - 기자 기고, 하루 시 한 편

03 - 경로당 탐방시리즈

04 -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

05 -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06 - 인생칼럼, 독자칼럼

07 - 자원봉사단체 소개

08 - 코로나 예방수칙



기자 기고

홍천실버신문 70호를 맞으며**김 정 현**

홍천실버신문 기자

세월이 유수 같다더니 참 빠르기도 하다. 기자모집 광고를 보고 제일 먼저 달려가 신청서를 제출했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6년을 두 달 남겨 놓고 70호의 지령을 자랑하게 되다니 감회가 앞선다.

기자로서 제대로 된 소양도 갖추지 못했지만 나는 기자라는 직함이 무척 흥미로웠다. 창설 멤버인 강원도민일보 권재혁 국장의 역할이 컸다. 취재는 6하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하라는 주문은 지금까지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

첫 취재로 제6기 민선에 당선된 노승락 홍천군수 당선자 인터뷰에 설레며 가슴 떨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군정을 잘 이끌어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노승락 군수님한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제일 먼저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노인회장과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농촌의 경로당이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이 친목을 다지며 서로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휴식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취미 활동과 운동도 하며 즐겁고 보람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로 나는 홍천으로 귀촌한 지가 10년이 되었다. 10년 전만 해도 차를 몰고 길을 지나가면 마을의 길 모퉁이에 앉아계신 어르신들이 차가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며 무료함을 달래던 시절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먼 노인회장을 취재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도 잊지 못한다.

두촌면 이승만 노인회장님을 취재하려고 갔을 때의 일이다. 이름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과 같아 인상적이었다. 초등학교 뒷집이라고 일러준 대로 찾아가 회장님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해 취재를 다 마치고 선물까지 드리고

나왔다. 그런데 어쩐지 석연치 않아 진짜 노인회장님이 맞느냐며 다시 물으니 저 아래로 더 내려가라는 것이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실소만 머금은 채 그 집을 나오기도 했다. 북방면에서는 노인회장님이 인터뷰 중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산 밑에 사는 노인이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은 방에서 혼자 지내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다고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농촌도 도시화가 급속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홍천도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한다고 한다. 노노케어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자체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사는 곳에도 홀로 생활하는 노인의 가구가 의외로 많다.

자식이 있지만 대저에서 자신들의 삶에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야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의 생활 구조로는 부모를 보살필 여력이 없다.

이에 홍천실버신문은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홍천의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요소요소에 실버신문을 배포를 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그리고 활기찬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신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100호 또는 1000호를 위해 현재 8명의 기자들이 열정을 다 할 것이다.

신문을 받아보고 격려와 기사에 대해 독자들이 관심을 전화로 걸어올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양양에서도 우리의 신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그곳의 스태프들이 방문해 관리와 운영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들의 궁금한 점을 배워 가기도 했다.

실버신문이 지향하는 노년의 꿈과 노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면을 할애하고 효용성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70호의 발간을 맞아 더욱 알차고 내용이 건실하며 독자들에게 다가가도록 실버신문은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 믿는다.

김정현 기자

(kjh8639@hanmail.net)

하루 시 한 편

연못가에서

김 정 현

하늘도 내려앉아
구름도 띄워 보고
옆 산도 샘이 난지
연못 속에 내려앉아
한 세상
삼라만상을 맑은 물로 행군다

맑은 물 맑은 햇살
연못가에 홀로 앉아
막걸리 한 잔 부어 풍경을
벗 삼는데
골바람 지나가기에
한 잔 술을 권해 본다

사람이 사는 것이
어렵다 말들 하지
생각만 바꿔보면
지옥도 천국 되지
연못 속
새로운 세상 바라보면 알 수 있어

나의 시조관

시조는 우리의 조상의 혼과 풍류가 가슴속을 적셔 흐르는 우리 민족 고유의 가락이다.

현대 시처럼 난삽함도 없고 짧은 글 속에 함축과 삶의 심연에서 건져 올린 진솔한 이야기를 형상화하는 장르여서 시조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3행의 압축된 행간에 기승전결의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명징하게 뜻이 전달되는 것이 시조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시절가조라는 명칭처럼 삶의 애환과 시대상을 담아내는 노래이다. 도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의 생활이 시조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수많은 질료를 제공해 주었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삶이 동력을 제공한 셈이다. 전원의 삶은 우리 조상들이 즐겨 다뤘던 강호가도와 음풍농월의 지고지순한 멋을 향유할 수 있는 자연의 혜택 속의 축복된 삶이다. 눈만 뜨면 바라보는 올망졸망한 수많은 산봉우리 하얀 눈 속에 매화 꽃송이처럼 아름답다. 운무에 쌓인 비경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에 옛날 선조들이 즐겨 부르던 시조의 멋과 향기가 가슴을 적셨다.

유럽의 소나타나 중국의 율시와 일본의 하이쿠처럼 우리 고유의 노래인 시조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경로당 탐방시리즈 - 70호 특집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이형주 지회장 인터뷰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 노인회장 연수 차질없이 추진”

대한노인회는 1969년 노인복지증진과 노인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노인들을 주축으로 16개 시·도연합회와 1개 직할지회, 244개 시·군·구지회를 비롯하여 65,000여개의 경로당과 20개의 해외지회를 거느린 대한민국의 대표 노인 단체이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 노인자원봉사 진흥을 통해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노인들의 정서적 공유의 장인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무주우정연수원,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노인지원재단, 노인의료나눔재단, 노인복지관 등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한 사회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존중받는 사회구현은 물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노인양성을 지향한다.

본지는 발간 70호를 기념하여 홍천군의 대표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를 방문, 이형주 지회장(1943년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회장님이 걸어오신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농협에서 관리직으로 30여년을 봉직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홍천군 테니스협회 회장, 강원도 게이트볼 연합회장,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대한노인회 홍천읍 분회장(7년)을 역임했으며, 2018년에 임기 4년의 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장에 당선되어 현재 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회장직을 수행하며 보람을 느낀 일은?

지회 사무실이 주차할 곳도 없고 응접실도 없어 방문하는 회원들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사무실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신축되어 새로운 장소인 홍천군노인회관(홍천읍 너브내길 127)으로 2월 4일 이사하게 된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9년에 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강원도 최초로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 것에 또 나름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지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난해 예산은 7억 9천만 원으로 그 외 회비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각 경로당에서 2만원을 받고 도회와 중앙회에 6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 지회는 상근 직원이 6명인데 직원 급여 등은 군에서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중앙회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 올해 예년과 특히 다르게 전개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노인 건강 돌봄 프로그램 예산이 매년 적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경로당이 있어 죄송하고 고심이 많았는데 다행히 올해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받아 홍천



◇이형주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장.

군의 204개 경로당 전체에 치매, 오락,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지원을 해준 허필홍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새해 역점을 두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새해 역점을 두는 사업은 내가 회장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건 심부름하는 노인회장들이 조금이나마 자긍심을 갖고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무보수로 봉사하는 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7년 당시 군수와 노인회 분회장 모임에서 노인회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당시 군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나는 이것을 굳게 믿고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 지회장이 되었으므로 이 공약이 새해에는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또한 새롭게 각 마을의 노인회장에 당선되신 분들이 경로당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무주우정연수원”에 1박2일간의 연수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봉사를 하다보면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가족들의 불만 등은 없으신지요?

자녀 7남매 모두 잘 성장 하여 각자 맡은 본분에 충실하고 가정생활도 여유롭고 손자들도 별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어 자식들 걱정은 없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욕심도 안내고 오히려 아버지 재산은 다 쓰고 가라고 하니 그저 내가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 형제도 9남매인데 내가 장남으로 어려운 형편에 많은 식구가 별 하자 없이 건강하게 먼저 간 사람도 없어 다복하게 잘 지내는 것은 내조를 잘해 준 덕분으로 아내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새해에도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닐 계획이며 회원들 모두의 건승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화한 모습의 이형주 회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 지회를 방문해 주신 노인회 회장님들께 친절하게 응대하는 사무국 직원들을 보며 새해 첫 인터뷰를 상쾌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마칠 수 있었다.

경자년 새해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및 각 경로당 11,577명의 회원들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해 본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소개 - 숙원사업 사무실신축 준공·사무실 이전 (2020.2.4.)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7 - 대표전화 : 433-0776 - fax : 433-0738 - E-mail : sch0776@hanmail.net
설립목적	-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
연 혁	- 1969.04.15.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설립 - 2005.08.19. 강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18.10.29. 부설 노인교실 사업자 등록
인 력	- 대표자 : 이형주 - 사무국 직원 : 6명 - 산하단체 회원 수 : 10개 읍면 분회 회원 11,577명
2019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790백만원 (보조금 733/자체수입 57)
2020년 주요사업 계획	-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개최 (10월) - 경로당 프로그램(연중) 3,680회 55,200명 - 노인대학 운영(3~11월) 2개 반, 64회, 연인원 6,400명 - 이동노인대학 운영(12월) 10개 읍면, 10회, 600명 - 어르신 일자리 재능나눔활동사업(3~11월) 600명 - 노인자원봉사 클럽운영: 10클럽, 140회, 2,800명 - 전통문화행사 참여(1월): 1회, 4명 - 노인건강증진사업전국대회 및 강원도 대회참가 - 노인취업지원센터운영(구직신청 및 알선, 취업) - 수자원공사 공익사업 40명, 왕대추 사업 20명

4차 산업혁명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

투자는 자산가들만의 영역인가

바야흐로 100세 인생 시대이다. 하지만 늘어난 수명이 마냥 기쁘기 만한 것은 아니다. 현직에서 물러나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던 우리 전 세대와 다르게 요즘 막 은퇴하게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건강하게 잘 늙는 문제와 부족한 은퇴자금이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은퇴 세대들에게는 아직도 30~40년 남은 은퇴생활은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었다.

길어진 은퇴이후의 삶, 불확실성의 시대, 축소성장 시대, 초저금리 시대. 이들은 우리가 투자(投資)나 재테크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주로 요즘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 투자는 자산가들만 하나?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투자나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투자, 그거 자산가들이 하는 것 아니가요?”, “살기도 팍팍한데 투자할 돈이 있나요?”, “투자나 재테크에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 “투자할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등 등. 그들의 공통점을 요약하자면, ‘투자는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하는 것이다.’와 ‘투자나 재테크는 상당한 경제, 금융 지식을 요하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다.’라는 주장의 오해아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견 맞는 말이지만, 사실 투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대답들이다. 직접 투자를 한다면 그들의 대답이 맞는 말이겠지만 전문가들을 이용한 간접 투자라면 우리 대부분 투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어깨에 올라타서 간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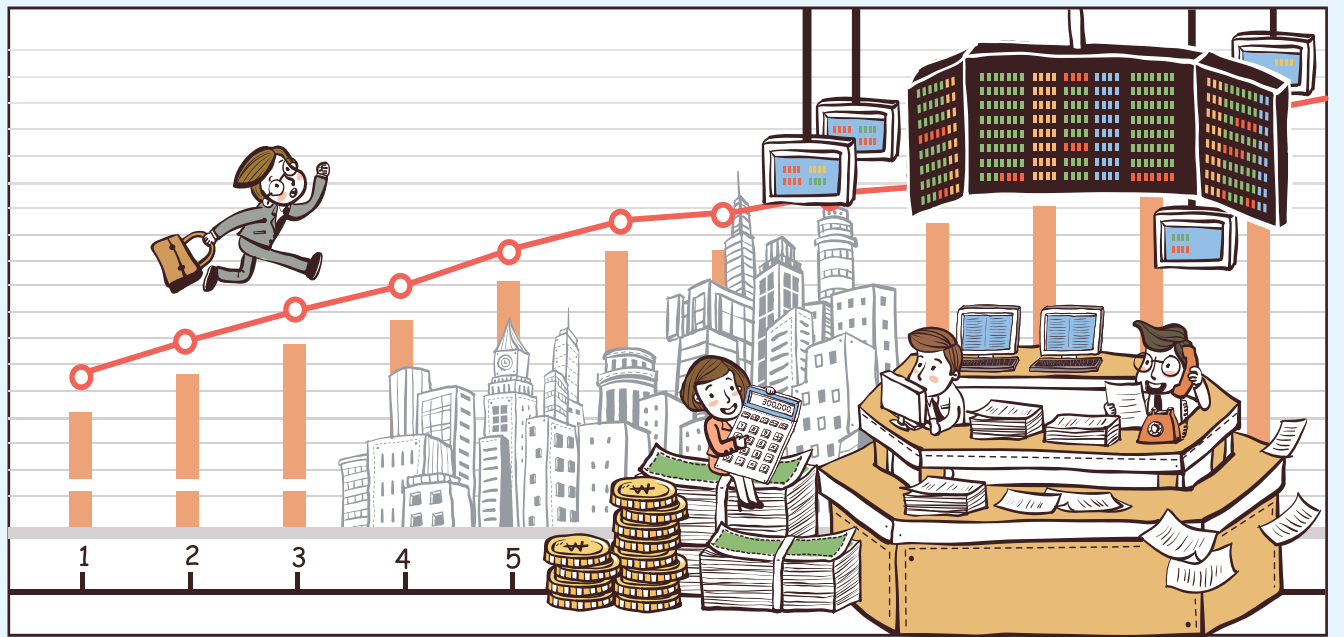
- 다양한 투자 대상들

투자를 결심했다면 투자 대상을 알아보자.

이제까지 돈을 불리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은행의 예·적금이었다. 고도 성장기에 가능했던 재산 증식 방법이었지만 이제 그 방법은 효력을 다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전 세계적인 축소성장 시대. 금리는 1~2%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은행에 맡겨도 손해인 셈이다. 그렇다면 다른 투자 대상은 어떤 것일까?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까?

투자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가 그것이다.

부동산은 토지, 주택,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이 있고, 주식은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을 구분하여 투자할 수 있고, 국내 주식만 해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합해 2000여 종목이 상장, 등록되어 있다. 그 외 비상장 주식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채권도 해외채권, 국내채권에 구분하여 투자할 수 있는데 익숙한 국내 채권만 보자면 보통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통안채(통화안정채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있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단기물, 1년물,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심지어 50년, 100년물도 있다, 외화도 투자 대상이다.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로화 등도 환차익을 보고 거래하는 투자 대상인 셈이다, 현물인 금과 은은 전통적 재테크 수단이고, 원자재도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구리, 납, 아연, 농산물까지. 또한 이러한 모든 투자 대상을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 형식도 있다.

투자 대상들을 열거해보니 사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이러니 금융 사정에 문외한이고 신경 쓰기 귀찮은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이야 그저 은행에·적금이 최고 투자라고 포기하며 투자와 재테크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보자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위해 투자 기관들은 이 모든 투자 대상들을 소액의 자금으로 거래하기 편하게 주식 종목처럼 구성해놓았다.

바로 ETF(Exchanged Traded Fund)다. 이는 상장지수펀드로 KOSPI200, KOSDAQ150처럼 특정지수를 모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각종 투자 상품들의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약간의 경제지식과 금융 지식,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안목만 있다면 전문 투자자의 어깨에 올라타 우리도 그리 커다란 품 안들이고 투자를 할수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에게 100만원의 여윌돈이 생겼다 가정하고 위 투자 대상들을 크게 20%씩 포트폴리오를 짜보

았다. 우선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주라고 하는 ‘삼성전자’를 사기로 했다. 현 시세 60,000원, 4주를 사니 240,000원이 들었다. 부동산 종목은 부동산만 전문으로 투자하는 회사 종목 ‘롯데리츠’를 바꾸니에 담았다. 현 시세 5,700원으로 28주를 사니 159,600원. 채권과 원자재는 ETF로 사기로 했다. ‘TIGER 국채3년’이 현 시세 110,000원으로 2주를 사니 220,000이 들었고, 원자재는 ‘TIGER 구리실물’ 종목을 바꾸니에 담았다. 현 시세 6,500원으로 28주를 사니 182,000원. 외화도 포트폴리오에 빠질 수 없으니 미국 달러도 샀다.

현 시세가 달러당 1190원. 남은 돈 20여만 원으로 167달러를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니 뭔가 내가 펀드매니저가 된 기분이고 조금은 부자가 된 느낌이다.

- 투자, 실행은 빠를수록 좋다

물론 이처럼 간편하게 투자하려면 스마트폰의 금융 앱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아울러 주거래은행 계좌와 거래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외화 계좌도 물론이고. 하지만 이런 모든 절차가 생각처럼 그리 복잡하지 않다.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라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금융사의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앱에 깔린 절차대로만 하면 된다.

예·적금이 더 이상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이 시대,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으로 돈은 더 필요한 시대. 그래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 내일이라도 당장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어떨까. 모든 금융처리를 스마트폰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 청소년편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게 꿈과 사랑을! 청소년과 함께 희망과 행복을!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최한 꿈드림 보고대회가 지난해 12월 홍천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청소년 문제, 부모교육, 상담자 훈련 등 전문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예방, 학교생활 적응 지원 올바른 자아성장 도와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 박형준)는 지역사회 청소년 및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학교폭력예방,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가족 프로그램, 또래상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안전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청소년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홍천군청소년상담센터가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며, 상담을 통해 문제를 평가한 뒤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관련기관에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부적응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내 학교 구성원들로 이뤄진 학교지원단을 조직하여,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꿈만 꾸지 않고 꿈대로 살았더니 꿈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2019 꿈드림 보고대회'가 홍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는데, 홍천꿈드림의 지난 5년간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청소년에 대한 표창과 올 한해 청소년을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멘토 및 지원단, 강사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여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사기진작과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들을 위한 제 2회 꿈드림 졸업식도 진행되었는데 9명의 검정고시를 통한 초·중고 학력취득 청소년이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졸업식이 진행되어 감동이 한층 더해진 시간이었다.

센터는 지난 2015년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한 바 있으며, 2015년과 2019년 홍천군 청소년의 행복지수 비교 결과 2015년 홍천군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40점, 2019년의 행복지수는 3.61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긍정적인 정서 경험에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5년도와 유사하게 2019년 조사에서도 전문계 학생들이 일반계 학생들보다 학업성취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전문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 활동 및 자격증 취득 등 전공과 관련된 교과 활동을 하며 높은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형준 센터장은 "본 연구를 통해 홍천군 청소년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본 센터가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홍천군

의 특별교육 지정기관으로 8회차 선정됐으며,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교권침해 등으로 징계 받은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학교폭력 피·가해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홍천군청소년상담센터는 2010년 8월 31일 개소해 10주년을 맞아 청소년 전화 1388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1388 4행시 짓기 공모전'을 진행하며, 이는 위기청소년들이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1388 전화를 통해 필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http://hcycl388.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시기에도 청소년의 모든 문제를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자 일선에서 애쓰시는 센터 가족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고충을 보람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부드러운 미소로 응대해주시던 송한솔 팀장과 김채은 사회복지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홍천군 청소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용방법은 일반전화는 1388,
휴대전화로는 지역번호+1388
이며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인생칼럼**석도익**

소설가

사람은 일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일원으로 참여하며 각종 조직과 모임 직장 등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간다.

어디에서든 사람이 모이면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를 지키려면 규칙이나 규범이 있으면 좋고, 조직이나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직위가 존재하게 된다.

민주화 지방화가 가속되면서 대통령에서부터 마을 이장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선거로 선출하게 되고, 권력이나 이권을 가진 단체에서부터 친목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이 선거로 선출하니 모든

일이 민주적으로 술술 잘 풀려나가야 마땅하다.

우리가 말하는 직위라고 하는 것은 명예스러운 자리다. “남자는 명예를 얻기 위해 산다.”는 말도 있듯이 가문에 영광이라며 앞 다투어 직함을 얻으려 하는 이유에 이권까지 얻을 수 있다면, 머리 터지는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며, 쟁취한 직함은 바로 명함 맨 위에 새겨지게 되는데, 직장이나 사회단체나 어떤 곳이든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그

그렇게 본다면 직위는 명예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되고, 직책은 일을 맡은 자리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일을 해달라고 직책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출된 사람은 조직을 이끌어 나가며 밖으로는 조직에 대표로 풀림이 없도록 하길 바라는데, 지도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형일 수 있다.

직책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없었다. 이는 잘못되면 저만 빠져나가고 모두 구렁텅이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인민을 앞으로 몰아가는 지도자는 아마도 사회주의로 지상낙원을 만든다는 북한의 김 씨 왕조일 것이다.

가장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지도자는 가운데서서 함께 소통하며 가는 지도자가 바람직하지만, 이를 시기하며 경쟁하여 편을 만드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구성원의 의식구조가 바르다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짧기는 하지만,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조국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마땅히 존경받아야 함에도 정치인들이 지금까지도 그를 독재자로 질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뜻대로 앞장서 갔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 수없이 치러야 하는 선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신중해야 하고, 지도자로 앞장서려고 출사표를 내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있는 직위를 바라지 말고, 일을 하기 위한 직책을 얻으려 했으면 한다.

지도자의 덕목

조직이 활력이 넘치고 또는 침체되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높낮이를 말할 때 “직책이 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가 뭐다?”라고 하며 누구나 계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이는 소시민으로 늘 주눅 들어온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사전적으로는 직위란, 직무상에서 부여되는 사회적 행정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며, 직책이란, 직무상에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는 조직의 가운데 서서 함께 소통하며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위를 이용해 뒤에서 조직을 감시 독려하며 몰아가는 지도자도 있을 것이다.

앞장서 가는 사람은 자칫 독선과 아집으로 소통부재가 있을 수 있어 염려된다. 그러나 빨리 갈 수는 있을 것이나, 독재라는 질타도 받을 것이다.

한편 뒤에 서서 구성원을 앞으로 몰아가는 사람은 민주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독재자임에는 틀

독자칼럼**이세현**

전 춘천시 경제인연합회장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육가구와 인구수는 2018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574만 가구 1,481만 명에 이른다. 바야흐로 반려동물가구 600만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핵가족화 독거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사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애완동물도 많이 기르고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애완동물은 관상어, 과충류, 포유류, 조류, 양서류, 절지류, 석형류 등이고,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등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다. 반려동물 개, 고양이 사료 먹거리가 다양해졌고, 미용실

가죽병원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사망 후 처리하는 화장장, 납골당 등이 생겨났고, 화장 시 들어가는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니다. 우선 화장비용은 15만원부터 사체 무게에 따라 30여만 원까지 소요된다. 또한 부수적 용품이 있다. 관, 유골함, 수의 등 이것 역시 퀄리티가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간다(15만원~50만원)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납골 봉안비용이 있다. 산골이나

불쌍하고 안쓰러울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 사람보다 먼저일수는 없다. 요즈음 동물 복지가 회자되고 있다. 진정한 동물복지란 가정에 가두고 놀이감 내지는 자기욕구 충족을 위하여 불면 꺼질 새라 안으면 깨질새라 키워지는 모습에서 동물 복지를 논한다면 잘못된 사고가 아닐는지~ 인간의 인본주의란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그 본질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

소가 도축장에 들어서면 눈빛이 달라지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는 소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개 동물에 지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감정이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이라는 미명아래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이고 확증 편향성적인 사고가 아닐는지... 요즈음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부모가 늙어 병들고 치매가 오면 요양원에 모시고 심지어 발걸음을 끊는 자식들도 있다.

물론 옛날 농경시대와는 다르다. 그 시절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자식들이 수발을 했다. 그래서 효부상, 효자상 표창을 했다.

그러나 요즈음 사회는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 부부가 맞벌이해도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냅두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애완견, 애완 고양이에 쏟는 정성을 늙으신 부모님께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써본 것이다. 행여 필자가 언급함에 있어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정에 누가 되었다면 죄송함을 전한다.

금년 경자년에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필을 놓는다.

반려동물에 대한 진정성

봉안이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10만원~70만원을 상회한다. 참고로 춘천시민이 사망할 경우 춘천시 안식원에서 화장할 경우 7만원이고 산골은 무료다. 유골 봉안비는 30년에 32만원이다.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죽어서도 동물이 더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근친, 친족상해가 일어나면 동네가 창피하다고 쉬쉬 넘어가지만 이웃에서 애완견, 애완고양이를 학대하고 구타하고 죽이면 징역을 구형한다. 물론 동물도 생명체다.

복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귀엽다고 끌어안고 키워 비만체질을 만드는 것이 동물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위하면 착각이다. 불가에서는 방생법회가 있다. 생명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동물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똑같은 동물인데 소, 돼지 취급을 한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식용이기에 마구잡이 도살을 해도 불쌍하지도 않고 관찮다고 관용하는가? 도축장에 근무하던 지인이야기다.

자원봉사단체 소개

대한미용사회 홍천지부

30여년전 결성, 150명 회원 묵묵히 봉사 실천

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정기 방문
식사 거르며 200명 어르신 머리 손질
우수지부 선정 표창장도 수차례 받아

대한미용사회 홍천지부 회장 신경수씨를 인터뷰 하러 그녀가 운영하는 금강미용실을 찾았다. 오전에는 바쁘지만 해가 누엿누엿 지면 시내에 나왔던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미용실은 한산해진다. 벽에는 봉사하는 회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거의 젊은 여성들이나 남성들도 몇 분 함께 있었다.

그녀가 미용사회 홍천지부 7대 회장을 맡은 지 3년이 되었지만 그녀가 봉사를 시작한 지는 30년도 넘었다고 한다. 홍천미용사회의 봉사는 그보다 오래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옛날 아직 봉사란 개념이 별로 없던 시절에 이미 홍천에는 미용사 봉사회가 있었다는 것은 비록 가난한 지방이었지만 봉사 정신은 앞서간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회원 수는 남녀 150명가량이며 임원들도 20명이다.

3시간 동안 종합사회 복지관 200명의 머리 손질

정기적으로 월 1회 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동 봉사, 재가봉사 등을 한다. 그중 종합사회복지관 봉사가 제일 규모가 크다.

매월 둘째 금요일에는 조를 짜서 4~5명의 원장들이 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커트를 해드린다. 9시부터 12시 점심식사 전까지 마쳐야 하므로 매우 바쁘고 힘들다.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앉히고 차례대로 커트를 하고 나란히 앉혀 놓으면 마치 어린아이를 보는 듯 예쁘고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이대로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봉사만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커트 교육을 1개월간 받게 했다.

자격증은 없지만 복지관 봉사 때 10명이 함께 나간다. 신경수 회장은 이런 결정을 하고 팀을 만든 일은 정말 잘했다고 회고했다.

이동 봉사는 주로 임원들이 나가게 되고 재가봉사는 거동이 어려우시고 누워계시는 분들에게만 나간다. 그 밖의 요양원 봉사, 재가봉사, 이동 봉사는 임원들이 자진해서 나간다. 연세가 들수록 머리 모양은 깔끔해야 한다며 탑수룩한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어 드리면 어르신들도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하신다.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잘 해 드려야 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했다.



◇ 미용봉사를 하는 대한미용사회 홍천지부 회원들.

봉사의 기쁨과 보람

요양원으로 봉사를 나가면 어르신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양 있으신 분들도 많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가정사나 자식들 이야기도 하며 속마음을 털어 놓기도 한다.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신다. 헤어스타일도 스스로 결정하여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하며, 어떤 어르신들은 자신이 맘에 드는 원장을 지정하여 그분에게만 머리를 맡기기도 한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어 드리고 예쁘시고 젊으시다고 칭찬도 해 드리며 힘을 내시도록 격려를 해 드린다.

다음 달에 가면 친구를 만나듯 기다리고 좋아하고 반가워하신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이 갈수록 쇠잔해지는 모습을 보면 훗날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마음이 아련해지고 쓸쓸한 마음이 든다.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젊었을 때는 예뻐서 텐데 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영업장의 문을 닫고 나가면서 시간에 쫓기고 바쁜 가운데도 짬을 냈지만 돌아올 때는 보람과 기쁨을 가득 안고 온다고 했다.

요청하는 곳에 다 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신경수 회장은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항상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지금의 섬김과 나눔의 복이 몇 배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젊어서 시간 있고 능력 있을 때 봉사로 저축해 두자”고 회원들에게 말



◇ 봉사하고 있는 신경수 회장.

하며 격려한다고 했다. 단합도 잘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회원들 덕분에 강원도 18개 지부 중 홍천지부가 우수지부로 표창도 받았고 강원도 내에서 모범지부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대한미용사회 서울 중앙회에서 표창을 2번이나 받았다고 한다.

신경수 회장은 그런 덕분에 홍천에는 머리가 덜 수룩하게 다니시는 노인이 없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요청이 들어오는 곳은 많지만 다 나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일요일에는 회장이 혼자서도 짬을 내어 봉사를 나간다.

또 1년에 한 번 사회복지 의료봉사 때도 미용봉사 팀이 함께 합류하여 나간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며 봉사단을 이끄는 회장이 있는 한 어느 단체나 밝고 활기찬 모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다.

김순화 기자(hereme50@daum.ne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필수 위생수칙 4가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12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배제
- ②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③ 눈·코·입 만지지 않기

- ④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⑤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